

납작하게 눌렸던 마르크스의 이미지 생생하게 살아난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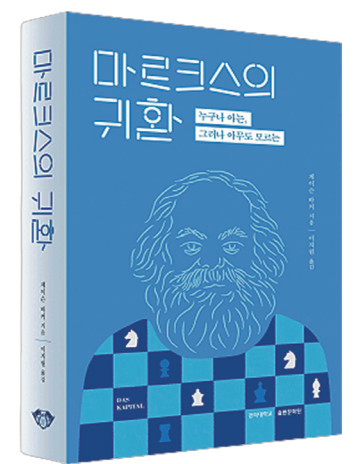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우리학교 출판문화원이 두 권의 번역서 『마르크스의 귀환, 제이슨 바커 저, 이지원 역』과 『공동체 경제학, 스티븐 A. 마글린 저, 윤태경 역』을 출간했다. 두 권의 책은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와중에 출간됐다. 팬데믹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필요한 시점에서 두 책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위인전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를 걷어낸 『마르크스의 귀환』은 독일의 사상가 마르크스의 일대기를 유쾌하게 그린 소설이다. 제이슨 바커(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마르크스의 귀환』을 통해 자본론을 완성해가는 마르크스의 삶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슬로베니아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마르크스의 귀환』을 두고 “마르크스의 혁명 사상 핵심에 가닿은 걸출한 소설”이라고 평했다. 이택광(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납작하게 눌렸던 마르크스의 이미지가 생생하게 살아난 것

처럼 말을 걸어왔다”는 추천의 글을 남겼다.

저자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훌륭한 사상가이자 괴상한 천재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억압과 악취가 가득한 19세기 영국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자본주의의 모순이 해소되는 세상을 소망한 꿈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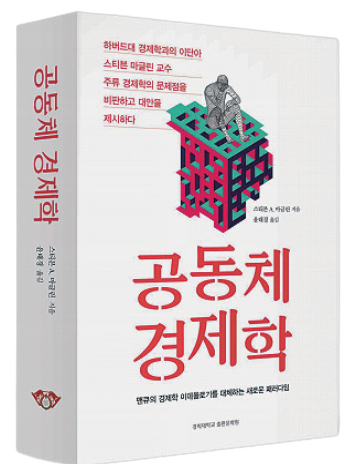
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집필을 향한 열정이 현실의 어려움을 모두 없애줄 순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책을 쓰며 자신의 삶을 위협에 빠뜨리기도 했

다. 그럼에도 글쓰기를 지속한 것은 그에게 ‘투쟁 없이는 변화도 없으며, 끝없는 투쟁은 결국 혁명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와 혁명을 위해 자본주의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 『자본』을 집필했다. 노동자와 가족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마르크스의 귀환』은 이처럼 위인으로서의 마르크스 이면에 자리한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집중한 책이다. 바커 교수는 “마르크스 가족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김 씨 가족과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자본의 부족에서 비롯된 비참한 생활, 생존을 위한 투쟁, 품위를 향한 욕망이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 경제학』은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파괴라는 주류 경제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경제학 서적이다. 경제학의 공동체 파괴적 성향 외에도 개인주의, 근대성, 국민국가 등 경제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아울러 참신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호주의 경제사학자 에릭 존스는 『공동체 경제학』을

두고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시장과 경제학에 대한 단호한 역발상적 비평을 담은 책”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유대인 시사 계간지 ‘티쿤’은 “이 책을 읽고 나면 지구적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의 선택이 갑자기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저자인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티븐 마글린은 경제학 논리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류 경제학 관점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다. 기존 경

제학은 개인주의와 이기심,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옹호하고 경험보다 합리성을 중시해왔다. 이러한 논리는 서구 근대성에서 시작돼 현재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경제학의 발전이 ‘공동체 붕괴’를 수반한다고 강조한다. 합리적 근대성의 관점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며, 공동체는 특정 이익 관계에 따라 생성 및 해체되는 단순한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글린 교수는 주류 경제학 논리를 탈피해 공동체와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나아가 ‘합리성’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을 흔든다. 주류 경제학에서 개인이 특정 행동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기준은 합리적 계산과 이익 극대화다. 그러나 마글린 교수는 “확률을 고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은 합리적 계산 외의 방법-직관, 통상적 행동, 권위-에 의존한다”며 “이는 공동체-공동체 구성원을 결속하는 인간관계-에 내재한 지식 체계”라고 주장한다. 모든 개인이 모든 상황에서 합리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굴하지 않는 인간상에 대한 보고서

『마르크스의 귀환』 서평

이택광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영미문화 교수



제이슨 바커의 <마르크스의 귀환>이 21세기 팬데믹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계절을 한참 넘겨서 도착한 것 같은 이 소설은 그럼에도 오늘의 위기를 예견한 듯, 사뭇 도입부부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유사한 전개를 보여준다. 소설은 산업화 이후 혼탁한 공해의 도시로 전락한 런던의 램버스 마시에서 망명객 마르크스가 풀리지 않는 방정식을 놓고 씨름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마르크스에 대해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독자들에게 이 소설은 시간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르크스가 엥겔스를 만나는 장면이나, 그의 예니 마르

크스와 집안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죽은 상징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인간 마르크스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손색이 없다.

소설에서 인간 마르크스는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우리와 다름없는 피와 살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놀랍게도 소설은 술한 정치적 수사에 가려져 있는 ‘영웅’ 마르크스를 젊은 시절을 탐진하고 흘러 흘러 런던까지 도달한 낙오자로 그린다. 가령 이런 장면은 어떤가. “호텔을 나와 레스터 광장을 가로지르며, 마르크스는 무너지는 자신감에 마음이 약해지고 부글거리는 술단지처럼 내장이 꾸르륵 대는 걸 느꼈다”(64쪽) 생활고와 지적 욕망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마르크스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이런 마르크스의 몸 상태는 당대 런던의 환경과 어우러져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더욱 강화한다. 독자마저 마르크스의 스트레스에 감염되어서 책을 던져버리고 싶어질 정도이다.

작가는 이렇게 쓴다. “교회 종소리는 미친 듯이 울리고, 도로를 오가는 탈것은 뿌연게 보이고, 사람들은 파리처럼 왕왕거렸다... 냄새는 또 어떤가. 탄 커피, 석탄재, 말똥, 유황, 공장 매연 등등이 내뿜는 유독가스와 악취가 한데 뒤섞여 그야말로 지옥의 혼합물이었다”(64쪽). 이 장면은 흡사 버지니아 울프의 <달러웨이 부인>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지만, 또한 그만큼 더 끔찍한 19세기 런던의 실상을 전달한다. 말 그대로 “헬 런던”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미래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친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매진하는 그의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출판사와 약속한 원고의 마감은 멀었고, 집안 형편은 갈수록 조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르크스는 자신의 친구인 엥겔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해보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썩 반가울 것 같진 않다. 나 역시 이 대목

을 읽으면서 과거 유학시절에 곤궁했던 처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완전한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한계 상황에 놓였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혼종의 비시스템으로 자본주의를 규정했다. 이 소설은 이런 마르크스의 사상을 잘 풀어놓는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소설의 미덕이 도드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내가 기술했듯이, 마르크스는 한 개인을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그리면서 그의 ‘천재성’이라고 숭양받던 업적이 어떤 일생의 투쟁을 통해 정립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마르크스는 인생 실패자에 고집스럽고 괴팍한 독일 망명객이었다. 이런 실패자가 어떻게 세계에 거대한 과문을 던질 수 있었는지 작가는 특유의 유머 감각을 동원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다.

이 유머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데, 가령 런던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마르크스에 대한 묘사는 슬그머니 웃음을 자아낸다. 아이들의 장난감을 전당포에 맡기고 끈 돈으로 목욕탕을 찾은 마르크스의 모습은 애잔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이런 실감 나는 에피소드 못지않게 일상을 함께 살아내는 예니의 존재를 이 소설이 가감 없이 그리고 있다는 것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미덕이다. 마르크스에 비해서 오히려 예니가 훨씬 더 강고하고 견결한 혁명가처럼 보이는 것은 이 소설이 주는 또 다른 신선함이다. 예니는 자유를 신봉하고, 전쟁을 반대했다. “전쟁으로 초래되는 인간의 고통”을 자연 상태로 규정하는 남성들의 리그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안개에 잠겨 있던 19세기 마르크스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나게 만든다. 현실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따라간 일군의 인간들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다.